

어머니와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일반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Mother-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on High School Daughter's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or Non-Working Status

건국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이상길

Dept. of Education, Kon-Kuk Univ.

Instructor : Lee, Sang-Kil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논의 |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facilitative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high school daughter on daughter's 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or non-working status. In order to verify statistically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experimental tools were made for each variable, and 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was conducted among high school girls in Seoul. A total of 670 questionnaire sheets were administered to 13 high schools for girls in December 2001, and only 501 shee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PSS 10.0 package was used for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Mother-high school 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s daughter's perceived family cohesion. In general, mother-high school 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had R square of 27.6% with regards to daughter's perceived family cohesion. 2) Mother-high school 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s daughter's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In general, mother-high school 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had R square of 25.3% with regards to daughter's perceived family adaptability. 3) Mother-high school 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significantly influences

daughter's perceived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of non-working status. In general, mother-high school daught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had R square of 24.0% with regards to daughter's perceived satisfaction of mother's working status, and 7.4% with regards to non-working status.

주제어(Key Words):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어머니 취업여부(mother's working or non-working status)

I. 서론

가정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물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의 하나는 물적 요인보다 인적 요인이 더욱 큰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환경의 인적 요인 중에서도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부모는 자녀들이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며, 이 모델링의 상당부분은 부모-자녀 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부모-자녀관계 중 특히 어머니-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녀에게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력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동성의 어머니와 딸은 밀접한 상호작용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는데(조은경·서병숙, 1994), 본 연구는 어머니와 청소년기 여고생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하고 그것을 촉진적 의사소통에 의해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촉진적 의사소통(facilitative communication)이란 원래 상담이론학자들이 상담에서 또는 조력(helping)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유형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따라서 상담이론학자들이 사용하고 의미하는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해 살펴보면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를 증대시키고 반면에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를 감소 내지 제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인간적 만남을 전제로 한다(변영인, 1999).

Rogers(1961)는 촉진적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핵심적 인간관계의 변인으로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존중, 순수성 등 3가지 변인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통

하여 표현하고 자녀가 그것을 왜곡 없이 지각하는 것이 자녀의 인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였다. Carkhuff(1967)는 기존의 상담이론과 기법을 분석, 검토하여 Rogers의 세 핵심변인 외에 구체성, 직면, 자기공개, 즉시성 등을 조력관계에서 인성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인간관계 변인으로 제시하여 촉진적 인간관계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와 여고생 자녀 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어머니는 자녀의 내면적 감정, 사고를 정확히 지각하여 이를 왜곡없이 충분히 표현하고,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존중과 관심을 표현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관한 극히 사적인 정보까지도 아무 거리낌없이 자녀에게 공개하여 자녀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수용적인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표현에 매우 직접적이고 명료한 반응을 보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탐색을 촉진하는 것이 어머니와 여고생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인 것이다.

촉진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변영인, 1999; 임은미, 1991; Lanza-Kaduce & Webb, 1992). 이밖에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대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아들보다 딸이 부모와 더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경주·신효식, 1990),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이금, 1993; 이정순, 1994), 가정의 생활수준과 부모의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다(권혜진, 1993; 이영숙, 2001).

그러나 기존연구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나 자녀의 개인적 변인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축진적 의사소통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으로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그리고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통해 축진적 의사소통이 가족생활 전반에 미치는 포괄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를 통해 본 연구의 초점인 어머니와 여고생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란 개념은 원래 상담 심리학과 가족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유형을 개념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교육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정의 과정환경적 변인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족의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 가족의 응집성은 가족 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Olson et al., 1992). 이 두 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가족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기능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개념이며,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딸에게 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Farrell & Barnes, 1993; Slicker, 1997)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였다.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심리적 유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Olson 등(1983, 1992)은 가족응집성을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로 정의하여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매우 연결(very connected)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은 매우 연결 상태에서는 가족성원의 지나친 동일시로 가족성원들간의 유대감이 지나치게 높고, 응집성이 낮은

과잉분리 상태에서는 가족성원들간의 유대감이 낮아진다. 그러나 이것은 비행청소년이나 결손가정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비정상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에서 주로 적용되는 척도이며, 최근에 정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가 긴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Olson et al., 1992).

가족적응성은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지켜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기에 가족 상호작용의 몇 가지 측면-가족의 변화(예, 가족발달관계)에 반응하는 융통성 정도, 가족의 지도력, 권력 및 훈육 등-을 포함한다(박지영, 1996). Olson 등(1983, 1992)은 적응성이란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 단계의 요구에 따라 그 가족 내부의 권력 구조, 역할 관계, 관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그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순서에 따라 그 정도가 가장 낮은 전제적인 경우를 '경직(rigid)'으로, 그러한 정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조(structured)'로, 가족문화가 민주적인 경우를 '융통(flexible)'으로, 지나치게 자유방임적인 경우를 '매우 융통 또는 혼란(very flexible or chaotic)'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가족응집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류는 비행청소년 또는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인 연구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이며, 정상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가족적응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문화가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Olson et al., 1992).

어머니는 여고생에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다. 특히 어머니가 직장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가족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 그리고 여고생이 어머니 취업이나 미취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여고생이 미래에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신의 직업태도 및 생활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고생 자녀와 자기탐색을 촉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본다.

그런데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 취업의 영향은 양립적이다. 어떤 연구는 어머니 취업이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어떤 연구는 그 가정을 지지하지 않는다(Abbott, 1991). 먼저 어머니의 취업이나 일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다(김경숙, 1997; 최성임, 1998; 최수연, 1997; Rivera, 1997).

반면에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Abbott, 1991; Paulson, 1996; Paulson & Slavin, 1991)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Abruzzese & Chambliss, 1993; York, 1994)는 연구들도 있다. 한편 어머니가 직업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 어머니가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느냐 또는 단순 노동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직업 유무 자체보다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더 큰 변수로 작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김응익, 1997).

또한 어머니의 직업 유무보다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목된다.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집에 있어야 그 역할을 다한다고 여기거나, 또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업을 갖거나 안 갖거나 관계없이 그 상태를 만족하며 자녀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때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이수정,

1993; Belsky et al, 1984).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 취업여부 자체가 아니라 여고생 자녀가 어머니 취업 또는 미취업에 대해 어떤 태도로 지각하는지를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라고 명명하여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여고생의 지각된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 연구의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인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적 변인과의 관계성을 보완하고, 자녀교육과 부모교육을 위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과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자료를 위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여고생을 대상으로 층화 군집 표집을 하였다. 서울지역을 11개 지역교육청으로 구분한 다음, 각 11개 교육청별

<표 1> 설문지 회수 현황

교육청명	여고생수(명)	표집학교	배부	회수	회수율(%)	유효	유효율(%)
중부	19,821	J고교	80	70	87.5	62	88.6
성동	11,591	M여고	50	45	90.0	37	82.2
동부	9,107	J고교	40	35	87.5	28	80.0
성북	7,733	H여고	40	30	75.0	24	80.0
북부	15,141	O고교	60	55	91.7	48	87.3
서부	13,928	S여고	60	50	83.3	44	88.0
강서	19,661	K여고	80	70	87.5	63	90.0
남부	12,196	G고교	50	45	90.0	38	84.4
동작	8,027	S여고	40	35	87.5	25	71.4
강남	22,125	C, U고교	90	80	88.9	68	85.0
강동	20,293	M, C여고	80	70	87.5	64	91.4
합 계	159,623	13개고교	670	585	87.3	501	85.6

(여고생수: 서울시교육청 통계, 2000년 기준)

로 소속된 여자고교 및 남녀공학고교 중 무선적으로 자기 1~2개 학교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학년과 학급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래서 총 13개 고등학교에 6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중 585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약 87.3%이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실제 통계분석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501부로서 유효율은 약 85.6%이다. 표집대상에 대한 설문지 회수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 질문지는 Carkhuff(1967)의 촉진적 의사소통 척도를 기초로 마정건(1988)이 제작하고 변영인(1999)이 보완한 것을 참조하였다. 시대적 변화상과 여고생에게 적합하도록 교육심리 전문가와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국어국문학 전공자들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래의 49개 문항의 질문지는 25개 문항으로 축소되었으며 질문문항 및 문항별 척도수준도 수정되었다.

본 검사에서 회수된 질문지를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산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communality(공유치)가 .40 미만의 문항 6개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19개 문항이 본 연구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사용된 질문지의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촉진적 의사소통 하위요인별로 개방성은 .689이고, 긍정적 존중은 .640이고, 수용성은 .687이었고 전체적으로 .8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마다 자녀의 가상된 자극 문항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Carkhuff가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1수준(가장 낮은 의사소통 수준)에서부터 5수준(가장 높은 의사소통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방성: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와 관심을 존중

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관한 극히 사적인 정보까지도 아무 거리낌없이 자녀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는 자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자기탐색을 촉진하게 된다.

- ② 긍정적 존중: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대단히 깊은 존중과 관심을 표현한다. 어머니는 자녀가 표현한 것을 넘어서 자녀의 인간적 가치에 몰입되어 의사소통한다.

- ③ 수용성: 어머니는 자녀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에 수용적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표현에 매우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대단히 직접적이고 명료하여 자녀의 깊은 수준의 자기탐색을 촉진한다. 어머니는 자녀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해석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자신을 수용해 주고 있다고 깊게 느낀다.

3.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질문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 III(the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를 권귀연(1994)이 변안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 가족응집성

FACE III의 총 20문항 중 10개의 문항이 응집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질문지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개 문항이 모두 communality(공유치)가 .40을 초과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의해 본래 5개의 하위변인(정서적 결속감, 도움과 의논, 가족의 경계, 여가시간 및 친구의 공유, 활동의 공유와 행사 참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를 공유도, 지지도, 결속도 등 3개의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가족응집성 하위변인별로 공유도는 .850이고, 지지도는 .792이고, 결속도는 .884이었고 전체적으로 .913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

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집성의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은 여고생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위변인별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유도: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내고, 여가 생활이나 가족 행사에 가족이 모두 참여하며 이를 좋아하고 즐긴다.

② 지지도: 가족내 구성원들이 개인의 일을 식구들과 상의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 가족 구성원의 친구와 동료들 서로 인정해준다.

③ 결속도: 가족 구성원이 유착감이 강하며 가족의 단합과 화목을 중요시한다.

2) 가족적응성

FACE III 총 20문항 중 10개의 문항이 적응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회수된 질문지 대상으로 구인타당도를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0개 문항이 모두 communality(공유치)가 .40을 초과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 의해 본래 4개의 하위변인(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과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지를 민주성, 융통성의 2개의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가족적응성 하위변인별로 민주성은 .821이고, 지지도는 .672이고 전체적으로 .827로 높게 나타났다.

본 질문지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응성의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적응성과 적응성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적응성은 가족 체계의 역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위 변인별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주성: 자녀들도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고 부모에게 자녀의 생각이 받아들여지

며 자녀가 벌을 받을 때도 먼저 대화가 이루어진다.

② 융통성: 가족의 규율이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으며 가족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 또한 고정불변적이지 아니라 바뀔 수 있다.

4.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한 여고생의 가정배경 질문지 속에 삽입되었다. 먼저 어머니가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미취업모 여고생 자녀 집단(N=260명, 51.9%)과 취업모 여고생 자녀 집단(N=220명, 43.9%)으로 구분하고,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N=21명, 4.2%)는 결측값 처리하였다.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미취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머니가 현재 직장을 갖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가정생활에 전념하는 것에 대한 여고생의 주관적인 반응을 의미한다(축약어: 어머니 미취업 만족도). 어머니가 직장 없이 가사만 돌보는 것에 대한 여고생의 반응을 '매우 불만이다: 1점', '대체로 불만이다: 2점', '대체로 만족한다: 3점', '매우 만족스럽다: 4점'의 Likert 척도로 구분하여 어머니 미취업 상태에 대한 여고생의 지각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직업 의식·가치관·태도에 대해 여고생 자녀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그것을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취업에 대한 만족도(축약어: 어머니 취업 만족도)라고 명명하였다. 어머니 취업에 대한 여고생의 지각된 만족도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788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① 과업지향적 성취동기, ② 직업에 대한 강한 자부심, ③ 직업에 대한 긍정적 몰입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반반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을 여고생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5.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 10.0 을 사용하였다. 연구 절차 및 연구 문제에 맞추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Cronbach- α), 단순 상관분석(Pearson's r),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등을 실시하였다.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63.187$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276으로서 독립변인인 축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응집성 전체함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27.6%임을 알 수 있다.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4.362$, $p<.001$)과 긍정적 존중($t=3.472$, $p<.01$), 그리고 수용성($t=5.314$, $p<.001$) 모두 가족응집성 전체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공유도

<표 3>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공유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41.157$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199로서 독립변인인 축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응집성 공유도에 전체 설명력이 19.9%임을 알 수 있다.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3.665$, $p<.001$)과 긍정적 존중($t=2.799$, $p<.01$), 그리고 수용성

III. 결과 및 논의

1. 결과

1) 어머니-여고생의 축진적 의사소통과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1)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전체함

<표 2>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전체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축진적

<표 2>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전체함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2
	B	표준오차				
상 수	17.313	1.405		12.325***		
개방성	.327	.075	.210	4.362***	63.187***	.276
긍정적 존중	.261	.075	.162	3.472**		
수용성	.377	.071	.260	5.314***		

** $p<.01$ *** $p<.001$

<표 3>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공유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2
	B	표준오차				
상 수	6.403	.678		9.438***		
개방성	.133	.036	.186	3.665***	41.157***	.199
긍정적 존중	.102	.036	.137	2.799**		
수용성	.142	.034	.214	4.156***		

** $p<.01$ *** $p<.001$

성($t=4.156, p<.001$) 모두 가족응집성 공유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지지도

<표 4>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지지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71.985$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303로서 독립변인인 촉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응집성 지지도에 전체 설명력이 30.3%임을 알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4.708, p<.001$)과 긍정적 존중($t=3.920, p<.001$), 그리고 수용성($t=5.443, p<.001$) 모두 가족응집성 지지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결속도

<표 5>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결속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

석한 결과, $F=29.423$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151로서 독립변인인 촉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응집성 결속도에 전체 설명력이 15.1%임을 알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2.629, p<.01$)과 긍정적 존중($t=2.044, p<.05$), 그리고 수용성($t=4.201, p<.001$) 모두 가족응집성 결속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1)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전체합

<표 6>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전체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57.574$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253로서 독립변인인 촉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적응성 전체합에 전체 설명력이 25.3%임을 알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4.408,$

<표 4>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지지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2
	B	표준오차				
상 수	6.690	.564		11.858***		
개방성	.142	.030	.222	4.708***	71.985***	.303
긍정적 존중	.118	.030	.179	3.920***		
수용성	.155	.029	.261	5.443***		

*** $p<.001$

<표 5> 촉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결속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2
	B	표준오차				
상 수	4.220	.375		11.258***		
개방성	5.256E-02	.020	.137	2.629**	29.423***	.151
긍정적 존중	4.097E-02	.020	.103	2.044*		
수용성	7.957E-02	.019	.222	4.201***		

* $p<.05$ ** $p<.01$ *** $p<.001$

<표 6>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전체함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 ²
	B	표준오차				
상 수	17262	1256		13,741***		
개방성	.295	.067	.215	4.408***	57,574***	.253
긍정적 존중	.226	.067	.158	3,357**		
수용성	.305	.063	.238	4,806***		

** p<.01 *** p<.001

<표 7>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민주성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 ²
	B	표준오차				
상 수	6201	.650		9,544***		
개방성	.171	.035	.241	4,930***	56,064***	.253
긍정적 존중	.110	.035	.150	3,173**		
수용성	.141	.033	.213	4,291***		

** p<.01 *** p<.001

<표 8>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융통성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 ²
	B	표준오차				
상 수	11,061	.780		14,178***		
개방성	.125	.042	.154	2,992**	35,972***	.178
긍정적 존중	.115	.042	.137	2,763**		
수용성	.164	.039	.217	4,165***		

** p<.01 *** p<.001

p<.001)과 긍정적 존중(t=3,357, p<.01), 그리고 수용성(t=4,806, p<.001) 모두 가족적응성 전체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민주성

<표 7>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민주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56,064이고 p<.001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²값은 .253로서 독립변인인 축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적응성 민주성에 전체 설명력이 25.3%임을 알 수 있다.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4,930, p<.001)과 긍정적 존중(t=3,173, p<.01), 그리고 수용성(t=4,291, p<.001) 모두 가족적응성 민주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축진적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융통성

<표 8>에 의하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융통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축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35,972이고 p<.001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²값은 .178로서 독립변인인 축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가족적응성 융통

성에 전체 설명력이 17.8%임을 알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개방성($t=2.992$, $p<.01$)과 긍정적 존중($t=2.763$, $p<.01$), 그리고 수용성($t=4.165$, $p<.001$) 모두 가족적응성 유통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

(1) 촉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취업에 대한 만족도

〈표 9〉에 의하면 어머니 취업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22.790$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240로서 독립변인인 촉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어머니 취업 만족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24.0%임을 알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중 긍정적 존중($t=4.141$, $p<.001$)만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성($t=1.722$, $p=.087$)와 수용성($t=1.632$,

$p=.104$)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촉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미취업에 대한 만족도

〈표 10〉에 의하면 어머니 미취업에 대한 여고생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변인인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 등의 독립변인을 투입방법으로 입력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F=6.862$ 이고 $p<.001$ 로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R^2 값은 .074로서 독립변인인 촉진적 의사소통의 종속변인인 어머니 미취업 만족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이 7.4%임을 알 수 있다.

촉진적 의사소통의 하위 변인 중 긍정적 존중($t=2.705$, $p<.05$)만이 어머니 취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방성($t=1.414$, $p=.255$)와 수용성($t=1.430$, $p=.154$)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논의

위 연구의 분석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촉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취업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2
	B	표준오차				
상 수	.770	.827		.931		
개방성	8.272E-02	.048	.139	1.722	22.790***	.240
긍정적 존중	.186	.045	.308	4.141***		
수용성	7.055E-02	.043	.127	1.632		

*** $p<.001$

〈표 10〉 촉진적 의사소통과 어머니 미취업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R^2
	B	표준오차				
상 수	2.317	.182		12.708***		
개방성	9.948E-03	.009	.081	1.141	6.862***	.074
긍정적 존중	1.946E-02	.009	.148	2.075*		
수용성	1.256E-02	.009	.107	1.430		

* $p<.05$ ** $p<.01$ *** $p<.001$

첫째,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부모에게 도전적인 시기로 보고, 이때 성인기를 위해 청소년기를 재조직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긴장감을 겪게 된다(정명희, 1987). 따라서 청소년기는 가족주기상 가족기능의 점검이 요구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가족기능은 의사소통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에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의사소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속에 살고 있는 현대가족은 가족의 내적, 외적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필요하며 이것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만족도와도 관련이 높다(변영인, 1999)는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 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는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과 변화대처능력은 부모와의 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자녀와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일차적 기능을 하게 됨을 반영한다(조은경·서병숙, 1994)는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성원들이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보다 바람직하게 수행하고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제”이므로 가족의 적응성과 가족의 응집성, 그리고 의사소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Olson et al., 1985)는 연구와 가족내의 적응성과 응집성은 가족원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또한 의사소통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이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Galvin & Brommel, 1986)는 간접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김진희, 1989)는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지지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해 단순히 의사소통의 개방성뿐만 아니라 긍정적 존중 및

수용성 등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연구의 촉진적 의사소통 질문지의 척도수준에 따른 내용을 시대 변화와 어머니-여고생에 초점을 맞추어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질문지인 FACES III에서 설정한 하위변인들을 새롭게 묶었다는 점과 문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연구의 곡선적 해석(민혜영, 1991; Miller, 1992; Thomas & Olson, 1993)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반가정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가족적응성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체계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하는 선형적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둘째,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 중 긍정적 존중은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청소년 자녀간 적절한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같은 심리적인 위험 노출을 감소시킨다(김오남·김경신, 1994; Kahlbaugh et al., 1997; Marta, 1997). 심리적 위험 노출의 감소는 자녀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촉진적일수록 자녀의 자아개념이 높다(권혜진, 1993; 김양숙, 1995; 김정희, 1987; 류영애, 1999; 박전교, 1994; 황동연, 1992). 그리고 자아개념의 평가적 측면이 자아존중감이며(한국교육심리학회 편, 2000),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 취업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최수연, 1997).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여고생의 촉진적 의사소통이 여고생이 지각한 어머니 취업여부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논리적 추론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촉진적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수용성은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 밝혔듯이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대단히 양립적인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통

계적인 해석을 한다면 설명력이 큰 변인이 다른 변인이 설명할 분량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먼저 투입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만족도와 개방성($r=.390$), 취업만족도와 수용성($r=.371$), 미취업만족도와 개방성($r=.194$), 미취업만족도와 수용성($r=.222$)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보다 다각적인 변수의 설정을 통해 유의미한 영향력의 여부를 재검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여고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적 의사소통으로 평가하고, 이것이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하기 위해 여고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요인 분석을 통해 촉진적 의사소통에 대해 개방성, 긍정적 존중, 수용성의 3개 요인을 설정하였고, 가족응집성에 대해 공유도, 지지도, 결속도의 3개 요인으로, 가족적응성에 대해서는 민주성, 융통성의 2개 요인을 설정하고,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응집성의 전체합, 공유도, 지지도, 결속도 각각에 대해 촉진적 의사소통의 3개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족적응성 역시 전체합, 민주성, 융통성 각각에 대해 촉진적 의사소통의 3개 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취업 및 미취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촉진적 의사소통의 긍정적 존중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개방성과 수용성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어머니 취업여부 만족도와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고생은 어머니가 자신과의 대화에서 개방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존중하며 수용한다고 지각할수록, 여고생은 가족의 유대감을 높게 지각하며 가족의 체계를 역동적으로 지각한다. 즉, 어머니가 여고생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존중을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통해 자녀의 자기 탐색을 촉진할수록, 여고생 자녀는 자신의 가족이 함께 하는 일과 여가에 참여하는 것을 즐기고,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가족의 단합과 화목을 중요시한다고 지각하며, 또한 대화를 통해 가족 문제 결정에 여고생 자녀가 참여할 수 있고 가족의 규율이 고정불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각하여 가족 문화를 민주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어머니가 대화를 통해 깊은 관심과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여고생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취업이나 미취업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킨다. 즉 어머니가 여고생 자녀의 감정, 경험, 잠재능력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인간적 가치에 몰입하여 대화하는 것이 어머니 취업이나 미취업을 막론하고 어머니에 대한 여고생의 긍정적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효과적으로 여고생 자녀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주도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한 부단한 자기 탐구와 연마를 해야 한다. 그것을 통하여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가족문화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취업모는 진취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업에 임해야 하며, 전업주부는 단란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고생 자녀에게 가정생활 및 진로의 식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델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층화군집표집을 실시했으나 그 표집을 서울지역의 일반계 여고생에게만 국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 단위의 표집 및 실업계 및 특수고교로, 또한 어머니와 딸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딸, 어머니

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간의 의사소통을 비교 연구하고, 전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에게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후의 연구에서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물리적 구조환경을 결합시키고, 자아의식, 내외통제성, 합리적 신념 등 개인의 심리적 배경을 매개변인으로 개입시킨다면 본 연구 결과의 설명력이 보다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법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족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권혜진(1993).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숙(1997). 주부취업이 가족과 자신의 생활에 미친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오남, 김경신(1994). 어머니와 청소년의 의사소통 지각과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2(3), 105-120.

김응익(1997). 대학교양총서 61-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하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중 · 고교남녀 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적응성, 응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영애(1999).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마정건(1988).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전교(1994).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영(1996). 인문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영인(1999).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과 자녀의 학업성취.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경주, 신호식(1990). 청년기 자녀의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13.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만족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수정(1993). 여고생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이영숙(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순(1994).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우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은미(1991). 고교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학위논문.

조은경, 서병숙(1994). 부모 ·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 심리적거리 ·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12(1), 104-116.
- 최성임(1998). 어머니의 취업과 일만족이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연(1997). 어머니의 취업유무 및 일의 만족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심리학회 편(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 황동연(1992).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아개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bott, B. L. (1991).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girl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 Abruzzese, M. & Chambliss, C. (1993). *Adult daughters of working mothers: Supermom juniors?* EDR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ED358403.
- Belsky, J., Cernek, R. M., & Spanier. G. B. (1984). *The child in the family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Carkhuff, R. R. (1967). Toward a comprehensive model of facilitative interpersonal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4, 67-72.
- Farrell, M. P. & Barnes, G. M. (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Galvin, K. M. & Brommel, B. J. (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
- Kahlbaugh, P., Lefkowitz, E. S., Valdez, P., & Sigman, M. (1997). The affective nature of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concerning sexuality and confli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2), 221-239.
- Lanza-Kaduce, L. & Webb, L. M. (1992). Perceived parental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self-esteem: Predictor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drop-out rates. *ACA Bulletin*, 82, 1-12.
- Marta, E. (1997). Parent-adolescent interactions and psycho-social risk in adolescent: An analysis of communication, support and gender. *Journal of Adolescence*, 20(5), 473-487.
- Miller, K. E. (1992). Suicidal adolescent' perceptions of their family environment.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2(2), 226-239.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1992).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 of Minnesota press.
- Paulson, S. E. (1996).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revisited: An ecological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45(2), 201-208.
- Paulson, S. E. & Slavin, L. A. (1991).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Effects of demandingness, responsiveness, and commitment to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April.
- Rivera, M. (1997). Maternal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achievement of latino adolesc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NCFR Fatherhood and Motherhood in a Diverse and Changing World*, 59th, Arlington, VA, November.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Slicker, E. K. (1997).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Relationship to older adolescent behavi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05th, Chicago, IL, August.*
- Thomas, V. & Olson, D. H. (1993). Problem families and the circumplex model: Observational assessment using the clinical rating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2), 159-175.*
- York, M. (1994). *Self-esteem of children in fourth through sixth grades with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Master of Science Thesis, Fort Hays State University.